

# 중국인 유학생 대상 역사 문화 교육 방안

-주제 중심 접근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함윤주

(부산외국어대학교)

## 《목 차》

1. 들어가기
2. 한국 역사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
  - 2.1. 역사 문화 교육의 내용
  - 2.2. 주제 중심 접근 방법
3. 중국인 유학생 대상 역사 문화 교육 방안
  - 3.1. 역사 문화 수업의 설계
  - 3.2. 수업 구성의 실례
4. 맺음말

### <Abstract>

**Ham Yun Ju.** 2019. 1. 26. **A Study on Plans for History and Culture Education for Chinese Students in Korea; An Application of theme-based instruc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3, 115-14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educational content fit for education on Korean history and culture for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South Korea and search for practical educational methods for it. Chinese learners' knowledge about the history and language of their own country can be utilized as a resource to broaden their intercultural understanding when they study Korean history and culture. For educational content, the investigator found a topic in Choi

Chi-won, a Confucian scholar from Unified Silla, since he was a representative figure of enabling a historical recognition for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organizing specific content and devising proper instructional methods.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concept of history and culture education for foreign learners and theme-based instruction, which is an approach to language education that organizes content around a selected topic. One of the theme-based instructional models, the Six-T's approach in Stoller and Grabe(1997) was consulted to design a lesson and organize educational material for concrete lesson examples. The present study proposed a method of history and culture education based on learners' knowledge about their own culture and language and also their intercultural understanding instead of the old one-sided delivery method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thus holding its significance.(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chinese learners, korean culture education, history and culture, theme-based instruction, intercultural understanding

## 1. 들어가기

한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236만 명이 넘는 수를 기록했다. 1) 이 중에서도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위 과정에서 학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10만 명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같은 해 전체 체류 외국인 수의 약 4%에 해당한다.<sup>2)</sup>

---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년 12월호 통계월보> 체류 외국인 장·단기 체류기간별 현황 기준, 법무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유학생은 학교에서 한국어로 학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학습자인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학교생활은 물론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국내에서 학업을 마친 이후에는 본국으로 귀국하여 현지의 한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국내의 무역,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이들은 향후 본국과 한국 간 교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국과 한국 간 교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과 함께 태도와 가치를 포함한 문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목표 문화와 자문화의 관계 속에서 교류의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문화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내용 범주 중 이러한 요소에 부합하는 분야로 본고에서는 역사 문화 교육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은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역사적인 교류는 역사의 다양한 범주 중에서도 문화사에 속한다. 문화사는 일반적으로 문화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을 뜻한다. 국내의 역사학 분야에서는 문화재를 대상

---

2)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어학 연수생을 제외한 대학과 대학원 학위 과정의 유학생 수는 총 100,544명이며 그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이 57,815명(전체의 약 57.5%)으로 가장 많았다.

으로 고고학이나 미술학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문화사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특히 다른 문화권과의 문화 교류나 교역 양상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박경하 외 2016:29-31). 한국문화 교육에서 이와 같은 문화사를 바탕으로 한 역사 문화 교육은 학습자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류에 대해 역사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 문화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문화 교육에서는 역사 문화가 적은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데 그쳤다. 역사 문화 교육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영란 2006, 강진숙 2010, 전아경 2013, 백주연 2015 등). 그러나 역사 문화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 계속 제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화 교육의 내용 선정과 구성에 있어 명시적인 기준이나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을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한국문화 수업에서 역사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 데 두었다. 교육 대상으로는 현재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한국문화 교육 분야에서 다루어진 역사 문화 교육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선행 연구의 교육 내용 제시 양상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 문화 교육에 적합한 내용에 대해 고찰해 보고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 구성의 실례를 제시할 것이다.



## 2. 한국 역사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

### 2.1. 역사 문화 교육의 내용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과거의 인간 활동에 대한 기록을 뜻하며, 역사 교육에서는 이러한 인간 활동의 결과를 다뤄왔다(김한중 2007:53). 한편 한국문화 교육에서 역사 문화의 개념은 한국의 생활 문화, 언어 문화, 예술 문화 등의 여러 교육 내용 범주 중 하나의 하위 항목으로서 병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래 <표 1>은 한국문화 교육의 내용 범주를 유형별로 제시한 선행 연구 중 역사 문화에 포함되는 요소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역사 문화 교육의 내용으로는 대체로 한국에서 일어난 시대별 사건, 역사적 인물과 기념물, 문화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한국문화 교육에서 역사 문화 교육의 내용 범주>

| 논저              | 교육 내용 범주                                                                            |
|-----------------|-------------------------------------------------------------------------------------|
| 조항록<br>(2004)   | ·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진행하며 쌓아 온 산물들을 포함<br>: 문화재, 역사적 기념물,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문물                    |
| 민현식<br>(2006)   | · 한국사 개관, 한국 사건사, 국가 외교 현안                                                          |
| 박동호 외<br>(2006) | · 한국 역사 개론: 한국 통사, 시대사, 지역·집단별 역사<br>· 한국 역사의 이해: 사건, 시기 및 시대, 인물 및 단체,<br>특성 및 정체성 |
| 황인교<br>(2008)   | · 한국사: 통사, 시대별 역사, 지역별 역사<br>· 한국 역사의 이해: 사건, 시기 및 시대, 인물 및 단체,<br>특성 및 정체성         |

위와 같이 선행 연구에 기술된 역사 문화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의 역사를 시대 흐름에 따라 통사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사로 그 내용을 한정하여 시대별 개괄적인 특징과 사건, 인물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육 상황을 전제한다면 한국 통사나 한국사 개관과 같은 내용을 한국문화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방대하며, 외국인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역사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 문화’로 사용한 연구는 전아경(2013), 백주연(2015), 진대연(2015, 2016) 등이 있으며 이와 다르게 ‘한국사’ 혹은 ‘한국사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로는 강진숙(2010)과 이병환(2010) 등이 있다.

우선 ‘역사 문화’로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한국문화 교육의 하위 범주 중 하나로 역사 문화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 연구가 있는 한편, 역사 문화를 한국문화와 거의 같은 층위의 개념으로 다루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연구에서는 역사라는 개념의 포괄적인 특성을 강조하며 문화 교육에서 한국 역사를 다루는 것이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한다거나, 한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 혹은 ‘한국사 문화’로 사용한 연구에서는 세계사 중 한국 역사만으로 지역 범위를 한정하거나 외국문화 교육으로서 한국사를 교육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어가 혼재된 양상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교육에서 역사 문화를 다루는 데 대한 교육 방향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역사 문화 교육의 내용 선정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2>는 한국문화 교육에서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한 선행 연구의 교육 내용과

주제를 종합하여 나타낸 목록이다.

<표 2 역사 문화 교육의 내용 선정 양상>

| 논문            | 교육 내용 및 주제                                                                    |
|---------------|-------------------------------------------------------------------------------|
| 강진숙<br>(2010) | ·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한 인물과 사건<br>: 세종대왕, 임진왜란, 동학 농민 운동                              |
| 전아경<br>(2013) | ·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한 인물<br>: 세종대왕, 이순신,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장영실, 정조, 정약용                 |
| 백주연<br>(2015) | · 시대별 대표 인물 4인<br>: 단군왕검, 방정환, 광개토대왕, 윤동주                                     |
| 진대연<br>(2016) | · 20세기 한국 현대사<br>: 일제강점기, 6·25전쟁, 경제 발전, 민주주의, 교육열 등<br>‘해방’을 주제로 한 6가지 하위 주제 |

이상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역사 문화 교육의 목적을 학습자가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데 두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목적을 제시한 반면, 교육 내용과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위와 같이 조선 시대나 한국 현대사로 어느 특정 시기만을 한정하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시대별로 대표적인 인물을 선정하여 제시한 경우도 있으나 주제 선정의 기준이나 근거가 모호해 보인다. 백주연(2015)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수업 대상별로 주제를 나누었는데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수업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급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고급에는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인물을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내국인 대상 국가 교육 과정을 근거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거나 내용 선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역사 문화 교육에 있어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연구로는 강진숙(2010)과 진대연(2015) 등이 있다. 강진숙

(2010)에서는 ‘학습자 능력별 위계화의 원리’를 교육 원리 중 하나로 내세웠다.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내용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별로 교육 내용을 분류해야 한다는 백주연(2015)의 분류 기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총체적 문화 이해의 원리, 의사소통 능력 및 문화 능력 신장의 원리, 문화 교류 및 비교 문화 능력 함양의 원리, 주제 및 내용 중심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주제 및 내용 중심의 원리는 방법적 측면의 요소에 해당하며 그 외의 원리는 교육 원리 보다는 일반적인 문화 교육의 목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진대연(2015)에서 제시한 내용 선정의 원리는 내용의 타당성과 유의미성, 유용성, 그리고 학습 가능성과 학습자 요구의 다섯 가지로 일반 교육학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역사 문화 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시에는 역사 문화의 특수한 성격과 외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한국어 숙달도와 내국인 대상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을 관련지어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어 능력이 초급이라고 해서 특정 인물에 대한 학습이 용이하다거나 중급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쉽다거나 하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수업에서 역사 문화를 교육할 시에는 한국어 자체보다 내용의 이해가 중시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내용의 담화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갖춘 중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국인 대상으로 개발된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외국인 학습자 대상의 수업 내용을 선정하는 방법 또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국내 고등학교에서 한국의 역사를 다룬 과목은 2009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국사’에서 ‘한국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교과서 명칭으로 사용되던 ‘국사’의 개념이 국가주의적 관념을 강하게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내국인 대상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적 태도로 기술

된 부분이 다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 대상 수업의 내용을 선정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병환(2010)에서는 국정 교과서로 학습한 한국인의 역사 인식과 이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한국인은 한국 역사에 대해 자문화 중심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한편,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사 인식에 있어 한국인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국인을 위한 한국사 교재로는 외국인에게 거부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한국사 교육은 역사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문화 간 의사소통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적인 교육 방향을 제안하였다.

역사 문화 교육에 있어 교육 내용 선정의 문제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수업에서 왜 역사를 다루어야 하는지와 무엇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 목적과 내용의 선정이 분리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 방향의 설정과 타당한 교육 내용 선정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 2.2. 주제 중심 접근 방법

주제 중심 접근 방법(theme-based instruction)은 외국어 교육 접근 방법 중 내용 중심 접근 방법(content-based instruction)에 속하는 수업 모형의 한 형태이다. 내용 중심 접근 방법은 외국어나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사회, 과학 등 특정 교과 의 내용과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언어를 통합한 형태로 가르치는 교육 접근법을 의미한다(Richard & Rodgers 2014). 내용 중심 접근법에서는 언어가 내용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언어 구조나 기능에 초점을 둔 여타의 언어 교육 접근법과 구분된



다. 즉, 외국어나 제2언어의 습득보다 내용 자체의 학습에 보다 비중을 둔 교육 방법으로 볼 수 있다.

Snow와 Briton(1997)은 내용 중심 접근법과 관련된 여러 수업 모형을 원리적인 차원에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 중 언어와 내용을 수업에서 다루는 비중과 방식이 명확히 구분되는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 중심 접근법(theme-based instruction)은 특정 주제와 주제에 관한 이야깃거리인 화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언어 교사가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와 요구 등에 맞춰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을 말한다. 둘째, 내용 보호 접근법(sheltered content instruction)은 언어 교사가 아닌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사가 학습자를 대상으로 내용을 가르치는 형태이다. 셋째, 병존 언어 접근법(adjunct language instruction)은 언어 교사와 교과 내용 담당 교사가 각각의 수업을 일치된 학습 내용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내용 중심 접근법의 수업 모형은 외국어 교육은 물론 여러 교과교육 분야에도 활용된다. 특히 주제 중심 접근 방법은 내국인 대상 교육과정의 역사 수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시대 순으로 다루는 통사적 접근법이 역사 교육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학습자의 흥미를 저하시키고 생활사나 문화사를 소홀히 다룰 수 있다는 측면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내국인 대상 역사교육에서도 교육적 가치가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와 화제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모형이 사용되고 있다(김한중 2007:144-145).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역사 문화의 교육에 가장 적합한 수업 형태를 주제 중심 접근법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업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주제 중심 접근법에 기반한 수업을 설계하는 데에는 중심이 되는 주제와 화제를 정하고, 텍스트와 과제 등 수업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



서는 수업을 설계하는 기준으로 Stoller와 Grabe(1997)이 개발한 6T 지침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 지침은 기존에 논의된 내용 중심 접근 방법의 구성 요소를 통합하여 정리한 후 주제 중심 형태의 수업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6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주제 중심 접근법에 따른 6가지 수업 설계 기준>

| 구성요소                | 세부 내용                                             |
|---------------------|---------------------------------------------------|
| 주제<br>(theme)       | 주요 교육과정의 여러 단원을 구성하는 중심 제목                        |
| 텍스트<br>(texts)      | 주제와 화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을 담은 자료                       |
| 화제<br>(topics)      |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하위 단위의 소재                    |
| 연결고리<br>(threads)   | 주제와 연관된 여러 소재나 다른 주제를 일관성 있게 연결하는 수단              |
| 과제<br>(tasks)       | 학습한 내용과 언어를 활용해 보는 의사소통 활동                        |
| 이행<br>(transitions) | 주제에서 화제로, 각각의 화제 간, 화제에서 과제로의 연계를 위해 명시적으로 계획된 행동 |

6T 지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는 ‘주제’로 주요 교육 과정의 여러 단원을 구성하는 중심 제목을 의미하며 이는 여러 수업을 아우르는 대주제와 각 단원 구성에 따른 소주제로 나눌 수 있다. 주제에 관한 이야깃거리가 되는 ‘화제’는 학습자들이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여러 소재로 조직된다. 주제와 화제를 선정할 시에는 학습자의 요구와 관심사, 기관의 교육 목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텍스트’는 주제와 화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뜻하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된 기존 교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교사가 직접 여러 자료를 편집하거나 제

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제와 화제, 텍스트는 각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6T에서 제시된 ‘연결고리’는 각 요소를 실처럼 서로 연결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sup>3)</sup> ‘과제’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통해 학습한 언어와 내용, 학습 전략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이행’은 주제에서 여러 화제로 혹은 화제에서 과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Stoller & Grabe 1997:82-86).

한국문화 교육에서도 주제 중심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임경순(2004)에서는 ‘요일’을 주제로 한 수업 예시를 제시하였으며 숫자와 한국인의 숫자에 대한 관념을 화제로 다루었다. 요일별로 일어난 사건을 쓰거나 특정 숫자나 요일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활동을 과제로 제안하였다. 이준호(2007)에서는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사회·문화’를 주제로 한 수업을 설계하였다. 하위 주제를 언어 문화와 정신 문화 등으로 나누고 각 주제의 단원별 화제로는 한국인의 가치관, 종교, 속담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김혜영(2011)은 미국 한 대학의 한국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 현대사’를 주제로 식민주의, 근대화, 냉전과 분단 등의 하위 주제를 연대 순으로 다루었다. 이와 같은 여러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와 관련된 주제와 화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텍스트와 과제를 계획하여 실제 수업의 구체적인 예시를 보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주제 중심 접근법의 주요 원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구성요소를 앞서 살펴본 6T에 따라 분석해 봤을 때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결고리와 이행에 관련된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제시한 경우에도 다른 요

---

3) Stoller와 Grabe(1997)에 제시된 용어는 ‘threads’로 ‘실, 가닥’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제시된 해당 요소의 역할과 이준호(2007), 김혜영(2011) 등의 번역 및 기술 양상을 참고하여 ‘연결고리’로 사용하였다.

소와의 연관성이 모호하였다.

Stoller와 Grabe(1997)에서는 다소 추상적이고 주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념으로 연결고리와 이행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수업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일관성 있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toller & Grabe 1997:84-85). 해당 요소의 포괄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선행 연구에서는 연결고리나 이행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거나 여타 요소와 분리된 개념으로 사용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연결고리의 개념을 선정된 수업 주제와 화제에 대해 교사와 학습자가 유의미한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문화 교육은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자국 문화와 상이한 목표 문화의 교육은 학습자의 관심이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편 문화를 편협한 관점으로 다룰 경우에는 학습자에게 거부감을 줄 우려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교육에서 연결고리는 상호 문화의 이해나 문화 간 소통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표 문화의 한 영역을 주제로 선정하고 이에 밀접한 화제를 결정한 후에는 학습자가 쉽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국 문화와 관련된 요소를 연결고리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 고리를 통해 자국 문화와 한국문화의 관계에 대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인식을 학습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

상호 문화의 이해는 역사 문화는 물론 생활 문화나 관념 문화 등 다른 영역을 주제로 한 수업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주제와 화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자가 수용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상호 문화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역사 문화 수업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 3. 중국인 유학생 대상 역사 문화 교육 방안

#### 3.1. 역사 문화 수업의 설계

본고에서는 앞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교육에서 역사 문화 교육의 내용으로 어떠한 요소가 포함되어 왔는지 확인하고 내용 선정의 기준과 교육 방법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주제 중심 접근법에 따른 수업 설계 기준인 6T 가운데 연결고리에 대한 역할을 부각하고 문화 수업에서는 이를 상호 문화 이해의 수단으로 설정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편 서론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기대되는 역할상을 제시하며 문화 교육의 방향을 학습자가 자문화와 목표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교류의 주체로서 바람직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 두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자국 문화와 한국문화의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역사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 대상으로 외국인 학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주목하였다. 중국인 유학생은 학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여러 국적의 외국인 학습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중국은 한국과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인접 국가이며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예로부터 양국 간 활발한 문화 교류와 교역이 이루어졌다. 또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도 다수 있어 왔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자국의 역사와 언어에 대한 지식은 한국의 역사 문화를 학습할 시에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역사 문화 교육의 대상으로 자국 역사 문화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자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학습 능력과 동기 면에서도 부합하는 중·고급 단계의 중국인 유학생을 선정하고자 한다.

### (1) 주제

본고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문화 수업의 주제로 ‘역사적 인물’을 설정하고 하위 주제로 통일신라 시대 인물 ‘최치원(崔致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최치원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건너가 6년간 유학생생활을 하고 외국인으로서는 드물게 당나라의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그곳에서 일하다 다시 10년 만에 신라로 돌아온 유학자이다. 한편 최치원은 중국에서도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당대 농민 봉기인 ‘황소의 난’의 진압에 공을 세웠으며 당시에 남긴 명문도 현재까지 남아 중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그 글이 실렸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는 양주 지방에 최치원 기념관을 설립한 바 있다. 외국인으로서는 중국 내 최초로 기념관이 세워진 것으로 현지에서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치원은 역사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교류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며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로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문화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는 수업에서 벗어나 자국 문화에 대한 지식과 자국어 능력을 자원으로 하여 목표 문화를 학습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텍스트

주제 중심 수업의 설계 기준이 되는 6T 가운데 텍스트는 주제와 관련된 넓은 의미의 매체를 뜻하는 개념으로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의 글은 물론 동영상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최치원을 소재로 제작된 텔레비전 교양 방송 프로그램과 최근의 신문 기사, 최치원이 지은 한시 등을 텍스트로 선정하고자 한다.



한국어 숙달도가 고급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중급 학습자가 대다수인 수업 상황에서는 신문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전문적인 어휘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풀어쓰거나 편집하는 등 재가공이 필요하다.

텍스트의 제시 방식은 다양한 내용을 각각 제시하기보다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를 여러 형태로 활용하여 학습자가 언어 기능을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교양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를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고 그 내용을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게 재가공하여 읽기 텍스트로 제시할 수 있다. 시청각 자료를 통해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

### (3) 화제

화제는 연구자에 따라 ‘소주제’로 번역하여 주제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주제에 관한 여러 이야깃거리로 수업에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화제’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활동했던 배경이 되는 통일신라 시대와 관련된 요소를 중심 화제로 삼되, 중국과의 당시 교역품, 최치원이 유학을 간 이유나 이후 행적들의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신분제도, 큰 역사적 흐름 등 다양한 소재로 조직해 보고자 한다.

위 화제를 바탕으로 부교재를 제작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거나, 수업 전이나 후 단계에서 화제에 관해 학습자가 모국어로 조사한 내용을 한국어로 바꾸어 발표하게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4) 연결고리

6T에서 연결고리는 주제와 화제, 텍스트 등 전체 수업 요소의 연계성을 높이는 수단의 개념으로 기술되었다. 본고에서는 앞서 설정한 주제와 함께 학습자의 자국 문화와 목표 문화를 서로 관련지을 수 있는 요소를 연결고리로 선정하여 상호 문화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최치원 관련 문화재, 한국과 중국의 역사상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제도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중국 양주시의 최치원 기념관이나 장쑤성의 쌍녀분 등 최치원 유적지가 위치한 도시의 특성에 대해 학습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의 내용을 도입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당나라의 유학생 제도인 국자감에 대해서도 최치원이 당시 유학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소개할 수 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러한 교육 제도의 영향으로 ‘국학’이 설치되었고 고려 시대에는 ‘국자감’이라는 명칭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요소는 양국의 교육 문화와 제도의 교류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당나라와 신라에서 범위를 넓혀 당나라의 대외 개방 정책이나 실크로드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다. 이러한 연결 고리를 통해 목표 문화에만 치우칠 수 있는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자국 문화와 한국문화의 상호 교류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다.

#### (5) 과제

과제는 학습자가 주제에 관해 이해하고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해 보는 유의미한 의사소통 활동을 의미한다. 언어와 문화의 학습을 통합하는 수업에서 과제를 설계할 시에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뿐 아니라 내용의 학습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언어 면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기능을 모두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주제로 설정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추측하는 활동을 구안해 보았다. 이와 같은 과제 수행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지어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한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인식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6) 이행

6T 지침에서 사용된 이행의 개념은 주제에서 화제로 넘어가거나 화제에서 과제로의 전환을 뜻한다.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교실 내에서 학습한 내용을 교실 밖의 실제 요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하게 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습자의 요구가 높은 문화 교육의 방법 중 하나이면서 역사 문화의 교육 내용과 연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역사 수업에서 현장체험학습의 활용에 대한 효용성과 관련하여 오영찬(2017)에서는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문화 유적과 유물을 직접 관찰하고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학습 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데도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행의 요소로서 최치원에 대한 내용 중심의 교실 수업과 연계하여 현장체험학습으로 최치원 유적지를 방문하는 교실 밖 수업을 설계하고자 한다. 최치원에 대한 한국 내 관련 여러 유적지 중에서도 해운대 동백섬은 부산 지역에서 유학 중인 학습자가 실제 방문하기 쉬우며 지역 사회의 문화 요소들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상으로 주제 중심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지침인 6T에 따라 역사 문화 수업의 세부 내용을 구안해 보았다. 각 항목별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각 구성요소에 따른 수업 설계 예시>

| 구성요소              | 세부 내용                                                                                                                                                                                                                                                                                           |
|-------------------|-------------------------------------------------------------------------------------------------------------------------------------------------------------------------------------------------------------------------------------------------------------------------------------------------|
| 주제<br>(theme)     | 역사적 인물 - 통일신라시대 유학자 ‘최치원(崔致遠)’                                                                                                                                                                                                                                                                  |
| 텍스트<br>(texts)    | 1) 읽기 자료: 신문 기사<br>- <시진핑의 최치원 사랑...하동 등 유적지 관심> 연합뉴스, 2015/01/28<br>- < 중국 양주시(楊州市)와 ‘최치원 문화 교류’ 추진> 국제뉴스, 2015/11/24<br>2) 시청각 자료: 뉴스, TV프로그램<br>- <시진핑, 최치원 시 인용...벌써 세 번째>: MBN 2015/1/26<br>- EBS 방송 프로그램 <5분 한국사-인물로 보는 우리 역사 100> (2014)<br>- KBS 방송 프로그램 <학자의 고향 - 고운 최치원 1부/2부> (2011) |
| 화제<br>(topics)    | 1) 당과 신라의 교류 : 비단, 책, 차 ↔ 인삼, 금, 은 세공품<br>2) 산둥반도(山東半島)의 신라인 거주지:<br>신라방(新羅坊),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br>3) 당대 문학: 최치원의 시 <추야우중(秋夜雨中)><br>4) 신라 시대 신분 제도인 골품제<br>5) 신라 시대 전후의 역사적 흐름:<br>(한국: 삼국시대 - 통일신라와 발해 - 후삼국 - 고려<br>중국: 春秋、戰國、唐朝、五代十國、宋朝)                                                         |
| 연결고리<br>(threads) | 1) 중국 내 최치원 관련 유적지:<br>양주시(楊州市) 최치원 기념관(崔致遠紀念館),<br>장쑤성 가오춘현(江蘇省 高淳縣) 쌍녀분(雙女墳)<br>2) 국자감(國子監)의 유학생 제도<br>3) 당나라의 대외 개방 정책과 실크로드(絲綢之路):<br>한반도, 일본, 아라비아, 동남아시아                                                                                                                                  |
| 과제<br>(tasks)     | 1) 해석 (interpretive)<br>-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하기<br>(당나라에 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 / 어떤 성격이었을까? 등)<br>2) 상호 대화(interactional)<br>- 중국에도 비슷한 역사적 인물이 있는지 이야기하기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몇 대목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뒷이야기 만들기</li> </ul> <p>3) 작문 · 발표(Presentation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최치원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상상해 본 내용에 대해 쓰고 발표하기<br/>(신라로 돌아간다/ 당나라에서 계속 산다 등)</li> <li>- 오랜 유학 생활로 힘들었을 유학생 시절 최치원에게 편지 쓰기</li> <li>- TV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을 대화문으로 바꾸어 보기, 역할극 하기</li> <li>- 수업에 대한 감상문(문화 체험 일기) 쓰기</li> <li>- 자신의 유학 생활과 향후 계획에 대해 쓰고 발표하기</li> </ul> |
| 이행<br>(transitions) | 내용 중심 수업에서 현장 체험 학습으로 전환하는 단계<br>: 해운대 동백섬 내에 위치한 최치원 유적지를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선정                                                                                                                                                                                                                                                                                                                                                             |

### 3.2. 수업 구성의 실례

본고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문화 수업의 주제로 통일신라 시대의 유학자 최치원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Stoller와 Grabe(1997)의 6T 지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구안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수업 구성의 실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역사 문화 수업 개요 및 지도안>

| 항목    | 세부 내용                                                                                                                                   |
|-------|-----------------------------------------------------------------------------------------------------------------------------------------|
| 교육 대상 | 부산 내 대학에서 학습하고 있는 중 · 고급 단계의 중국인 유학생                                                                                                    |
| 수업 기간 | <p>총 4차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 2 차시(100분): 교실 학습 (내용 중심)</li> <li>- 3 · 4 차시(100분): 현장 학습 (체험 중심)</li> </ul> |



|           |        |                                                                                                                                                                                                                                                                                                                                                                                                                                                                                                                                                                                                                                  |
|-----------|--------|----------------------------------------------------------------------------------------------------------------------------------------------------------------------------------------------------------------------------------------------------------------------------------------------------------------------------------------------------------------------------------------------------------------------------------------------------------------------------------------------------------------------------------------------------------------------------------------------------------------------------------|
| 교육 목표     | 문화적 측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신라 시대 인물 최치원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한국의 역사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자국 역사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상호 문화 이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li> <li>-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대학생으로서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li> <li>- 부산 지역 내의 유적지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 학습자가 체류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li> </ul>                                                                                                                                                                                                                                                                                                                                           |
|           | 언어적 측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 들으며 이해할 수 있다.</li> <li>- 역사적 인물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한편 그 인물에 대해 추측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li> <li>- 주제에 관련된 문학 작품을 읽고 글에 나타난 정서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li> <li>- 신문 기사를 읽고 한중 문화교류에 대해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의견이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다.</li> </ul>                                                                                                                                                                                                                                                                                                                                      |
| 단계별 학습 내용 |        | <p>(1) 교실 학습 (내용 중심)</p> <p>1) 도입 - 읽기 전 단계 (10분)</p> <p>주제와 관련된 사진 자료를 제공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질문을 통해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이와 관련된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킨다.</p> <p>2) 수업 개요 소개 (10분)</p> <p>교사가 이번 차시에 학습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교실 수업 후 이어질 현장 학습에 대해 안내한다. 본 차시와 다음 차시 수업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한다.</p> <p>3) 읽기 단계 및 읽기 후 단계</p> <p>① 텍스트 1 (3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다. 학습하지 않은 어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시청각 자료:&lt;5분 한국사-인물로 보는 우리 역사 100&gt; EBS 방송 프로그램, 2014)</li> <li>-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파악한다.</li> <li>- 시청각 자료의 내용을 학습자의 숙달도와 수업 분</li> </ul> |

|  |                                                                                                                                                                                                                                                                                                                                                                                                                                                                                                                                                                                                                                                                                                                                                                                                                                                                                                                                                                                                                                                                                                                                                                            |
|--|----------------------------------------------------------------------------------------------------------------------------------------------------------------------------------------------------------------------------------------------------------------------------------------------------------------------------------------------------------------------------------------------------------------------------------------------------------------------------------------------------------------------------------------------------------------------------------------------------------------------------------------------------------------------------------------------------------------------------------------------------------------------------------------------------------------------------------------------------------------------------------------------------------------------------------------------------------------------------------------------------------------------------------------------------------------------------------------------------------------------------------------------------------------------------|
|  | <p>량에 맞게 가공하여 읽기 텍스트로 제공한다. 읽은 후에는 전체적인 흐름 및 세부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주인공에 대해 추측해 보고 자국에도 비슷한 인물이 있는지, 당시 자국의 상황은 어땠는지 주제와 관련지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p> <p>② 텍스트 2 (2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된 시를 묵독으로 먼저 읽고 2~3명 씩 소그룹을 편성하여 서로 소리 내어 읽는 활동을 한다.<br/>(읽기 자료: 최치원의 시 &lt;추야우중(秋夜雨中)&gt;)</li> <li>- 소그룹 별로 제시된 질문을 이용하여 묻고 답하는 활동을 통해 시의 배경과 의미, 정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p>③ 텍스트 3 (2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신문 기사를 텍스트로 제공한다. 이때에도 학습자의 숙달도와 교육 목적에 맞게 가공 및 재구성하여 사용한다.<br/>(읽기 자료: &lt;시진핑의 최치원 사랑...하동 등 유적지 관심&gt; 연합뉴스, 2015/01/28)</li> <li>- 신문 기사를 읽고 소그룹 별로 제시된 질문을 활용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의견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p>4) 마무리 (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차시에 학습한 내용을 질문을 통해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다음 차시에 대한 예고를 간단히 하고 집합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한다.</li> </ul> <p>(2) 현장 학습 (체험 중심)</p> <p>1) 현장 탐방 (90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집합 장소인 동백역에서 출석을 확인하고 동백섬 내 최치원 유적지까지 걸어서 이동한다.</li> <li>② 주제와 관련된 장소를 정해진 코스에 따라 탐방한다. 최치원 유적지 외에도 동백섬과 관련된 명소를 고루 둘러볼 수 있도록 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br/>(탐방 지역: 최치원 동상 - 누리마루 - 해운대 석각 - 황옥 공주상 등)</li> </ol> |
|--|----------------------------------------------------------------------------------------------------------------------------------------------------------------------------------------------------------------------------------------------------------------------------------------------------------------------------------------------------------------------------------------------------------------------------------------------------------------------------------------------------------------------------------------------------------------------------------------------------------------------------------------------------------------------------------------------------------------------------------------------------------------------------------------------------------------------------------------------------------------------------------------------------------------------------------------------------------------------------------------------------------------------------------------------------------------------------------------------------------------------------------------------------------------------------|

|  |                                                                                                                                                                                                                                                                                                                     |
|--|---------------------------------------------------------------------------------------------------------------------------------------------------------------------------------------------------------------------------------------------------------------------------------------------------------------------|
|  | <p>③ 탐방 지역과 관련된 문제 맞추기나 특정 사진 찍기 등 현장 수행 과제를 부여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p> <p>2) 마무리 (10분)</p> <p>- 도착 장소에서 현장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한 소그룹에게 상품을 수여한다.</p> <p>(3) 자기주도 학습 (학습자 중심)</p> <p>학습자가 교실 학습과 현장 학습을 통해 경험한 내용과 소감을 감상문 형식으로 써 볼 수 있게 하여 독자적 학습을 유도한다. SNS나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사진과 함께 자유로운 형식으로 쓸 수 있게 한다.</p> |
|--|---------------------------------------------------------------------------------------------------------------------------------------------------------------------------------------------------------------------------------------------------------------------------------------------------------------------|

####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실제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통일신라 시대 유학자 최치원을 주제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그에 맞는 교수 방법을 구안하였다.

우선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역사 문화 교육의 내용과 선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역사 문화를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주제 중심 접근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제 중심 수업의 설계 기준인 Stoller와 Grabe(1997)의 6T법에 따라 세부 내용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수업의 실례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역사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존의 교육 방법에서 나아가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자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교육 방안에 대해 실제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를 후속 연구 과제로 삼아 교육 방안의 적용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교육 대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로 구성된 수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국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역사 문화 교육을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 간에 이루어진 상호 교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교육적 요소를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진숙(2010). 한국사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오경(2009).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 5권 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49쪽~72쪽.
- 김영란(2006).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역사 교재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3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73쪽~97쪽.
- 김한중(2007). 역사수업의 원리. 책과함께.
- 김혜영(2011). 한국학과의 접목을 위한 내용 중심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1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97쪽~104쪽.
- 민현식(2006).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3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37쪽~180쪽.
- 박경하 · 전영준 · 박재영(2016). 한국 역사 속의 문화적 다양성. 경진출판.
- 박동호 외 10인(2006).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모형 개발’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 한국어세계화재단.



- 백주연(2015). 한국역사를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방안 연구,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언규(2009). 최치원의 재당 유학시절 콘텐츠개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영찬(2017). 세계문화유산 교육의 새로운 시도, <미술사학> 33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33쪽~253쪽.
- 이병환(2011).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 역사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준호(2007).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주제 중심 수업의 구성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34권, 이중언어학회. 349쪽~370쪽.
- 임경순(2005).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안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4권, 한중인문학회. 5쪽~26쪽.
- 진아경(2013). 한국 역사문화 교재 개발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항록(2004).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1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99쪽~219쪽.
- 진대연(2015). 한국 문화 교육의 개선을 위한 역사 문화 교육과정 시론, <교육문화연구> 21권 4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41쪽~177쪽.
- 진대연(2016).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 교수 설계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38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23쪽~252쪽.
- 황인교(2008).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 연구, <언어와 문화> 4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65쪽~287쪽.
- Snow, Marguerite Ann & Brinton, Donna M(1997). The content-based classroom : perspectives on integrating language and content, Longman.
- Stoller, F. & Grabe, W. (1997). A six-T' s approach to content-based instruction. In M.A. Snow and D.M. Brinton



(eds.), *The content-based classroom: Perspectives on integrating language and content* (pp. 78-94). New York: Longman.

Richards, Jack C & Rodgers, Theodore S(2014).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전병만 · 오준일 · 김영태 · 안병규 · 오윤자 역 (2017). *언어 교육의 접근 방법과 교수법*, 케임브리지.)

교육부 <http://www.moe.go.kr>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 <http://www.go-un.com>

연합뉴스 <http://www.yna.co.kr>

EBS 교육방송 <http://www.ebs.co.kr>

KBS 한국방송 <http://www.kbs.co.kr>

MBN 매일방송 <http://mbn.mk.co.kr>

## 필자 소개

성 명 : 함윤주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전자우편 : xianlaoshi@naver.com

투고일: 2019. 1. 26 / 심사일: 2019. 2. 7 / 심사완료일: 2019. 2. 14